

475년 漢城戰鬪의 軍事戰略과 戰爭史的 意味

鄭 載 潤

(독립기념관 자료팀장)

1. 머 리 말
2. 東亞細亞 政勢와 外交戰의 展開
3. 高句麗의 軍事戰略과 百濟의 對應
4. 漢城戰鬪의 戰爭史的 意味
5. 맺 음 말

1. 머 리 말

475년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공격한 고구려와 이를 저지하려는 백제와의 전투는 치열하였다. 한성 전투 결과 고구려는 도성을 함락하여 승리를 거두었고, 백제는 왕이 전사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다. 그런데 고구려는 신라의 구원병이 도착하자 도성에서 철수하였다. 기선을 제압한 고구려가 백제를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어렵게 공략한 도성마저 물러난 사실은 우

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에 따라 고구려의 한성 공격을 거시적인 큰 틀 속에서 南方政策¹⁾의 결과물로 이해하거나²⁾ 西方政策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정리 작업³⁾으로 보기도 한다. 아울러 한성 공격 자체에 주목하여 고구려의 목적은 한성 지역의 완전한 장악이 아니라 한강 유역에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제시되었다.⁴⁾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고구려의 한성 공격을 동아시아의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은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고구려의 한성 공격은 남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계획된 것이 아니라 서방정책 즉 동아시아 정세와의 連動性 속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성 공격이 어느 시기에 구체화되었는지 밝힐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고구려가 한성을 공격할 때 취한 군사전략과 목적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아울러 한성 공격이 동아시아 전체에 미친 파장도 궁금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당시 동아시아 정세를 살펴보면서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진 긴박한 외교전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고구려가 취한 군사 전략과 이에 대한 백제의 대응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고구려의 군사 전략과 공격로, 그리고 백제의 방어선을 살펴보고, 한성 공격이 구체화된 시기를 밝혀 내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러한 한성 전투가 동아시아 정세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크게는 중국의 통일왕조의 출현과 적게는 신라의 삼국통일이 이 전투에서 비롯되었

1) 南下政策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이거나 본고에서는 서방정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파악하여 이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 盧重國, 「高句麗·百濟·新羅 사이의 力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東方學志』 28, 1981, 69쪽.

3) 朴京哲, 「高句麗 軍事戰略 考察을 위한 一試論」, 『史學研究』 40, 韓國史學會, 1989, 53~61쪽.

4) 朴賢淑, 「熊津 遷都와 熊津城」, 『百濟文化』 30, 2001, 121쪽.

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475년 한성전투가 갖는 戰爭史的 의미를 밝혀 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 東亞細亞 政勢와 外交戰의 展開

5세기 전반에 이르러 중국 대륙에서는 北魏가 점차 주변 지역을 통일하면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자 宋과 柔然이 연합하여 이에 대결하였다. 즉 두 나라는 주변의 北涼과 武都國, 吐谷渾 등을 끌어들이 북위를 압박하였다. 이어 고구려에도 對北魏 포위 전선에 가담해 줄 것을 바랐으나, 고구려는 이러한 사정을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두 세력 간의 균형을 주도하였다.⁵⁾

고구려는 長壽王 15(427)년 평양 천도를 단행하여 한반도 방면으로의 남하를 추진함으로써 서북방 방면으로는 406년 後燕과의 전쟁 이후 6세기 후반까지 중국 및 북방 유목 국가와도 충돌이 없는 안정을 유지하였다.⁶⁾ 이에 따라 평양 천도를 서북방 지역이 안정되자 적극적인 남하를 추진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⁷⁾ 이에 반하여 평양 천도를 오히려 遼下以西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한 사전 정리 작업으로 이해하는 반론도 있다.⁸⁾ 이의 타당성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고구려의 정책은 동아시아 정세 변동에 따라 변화되었으며, 따라서 서방과 남방정책이 상호 연동성을 가졌다는 점은 감지되고 있다. 고구려의 한성 공격시기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5) 이에 대해서는 盧泰敦의 글(『5~6世紀 東아시아의 國際情勢와 高句麗의 對外關係』, 『東方學志』 44, 1984, 4~19쪽)을 참조하라.

6) 盧泰敦, 앞의 논문, 1984, 1쪽.

7) 盧重國, 앞의 논문, 1981, 69쪽.

孔錫龜, 『5-6세기의 대외관계』, 『한국사』 5, 국사편찬위원회, 1996, 78~84쪽.

林起煥, 『후기의 정세변동』, 위의 책, 91쪽.

8) 朴京哲, 앞의 논문, 1989, 53~61쪽.

로 보이며, 외교전의 전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를 밝혀보기로 하자.

평양 천도로 시작된 장수왕의 남방정책은 대내외적인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단이었다. 먼저 대내적으로는 평양으로 도성을 옮김으로써 구 도성이 국내성에 기반을 둔 귀족들에게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주었다. 귀족들이 이에 반발한 것은 충분히 상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당시 북위로 망명한 세력 중에 고구려 귀족 계통의 인물이 보이고 있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⁹⁾ 이와 같이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장수왕의 의도가 왕권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분명하다 하겠다.¹⁰⁾

대외적으로 고구려는 북위와 장수왕 24(436)년 北燕王 馮弘의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갔다. 비록 전쟁이 발발하지는 않았지만 438년 이후 462년까지 고구려와 북위는 사신 왕래가 없었다.¹¹⁾ 오히려 고구려는 송·유연과 등거리 외교를 유지함으로써 서방 지역에서 북위의 힘을 분산시켜 안정을 취할 수 있었다.¹²⁾

이와 같이 서방 지역이 절묘한 세력 균형으로 안정되자 고구려의 남방정책은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고구려의 남방정책은 서방 지역의 균형에 따른 선택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남방정책은 어디까지나 서방 지역이 안정을 유지하여야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고구려는 이 시기에 자기의 세력권으로 인식되는 한반도 지역을 평정함으로써 서방 진출에 대한 역량을 축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¹³⁾ 따라서 상황만 가

9) 徐永大, 「高句麗 平壤遷都의 動機」, 『韓國文化』 2, 1981, 152쪽.

10) 林起煥, 앞의 논문, 1996, 95~96쪽.

11) 盧泰敦, 앞의 논문, 1984, 9쪽.

12) 대부분의 견해가 이 시기 고구려의 외교를 대북위 연합전선에 가담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武田幸南,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1989, 223쪽. 盧泰敦, 앞의 논문, 1984, 10쪽. 孔錫龜, 『高句麗 領土擴張史 研究』, 서경문화사, 1998, 280쪽). 이와 달리 고구려는 국교 단절이라는 극한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실제적인 내용에서는 중립에 가까운 노선을 견지하였다는 견해도 있다(李成制, 『5~6世紀 高句麗의 西方政策 研究』, 西江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2, 74~83쪽).

지고서 남방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견해는 선뜻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고구려의 적극적인 남방정책은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 고구려의 남하에 한반도 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열도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제까지 親高句麗 정책을 추진하던 신라의 입장 변화가 이루어졌다.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가 한반도 지역을 지배하리라는 의구심이 들자 위기의식을 느꼈다. 이에 백제는 毗有王 7(433)년 신라에 화친을 청하였다.¹⁴⁾ 다음해에 신라는 거둬진 백제의 선물에 질 좋은 금과 명주로 화답하였다.¹⁵⁾ 이와 같은 백제와 신라의 접근은 바로 고구려의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는 양국 간의 이해 관계가 일치되었기 때문이다.¹⁶⁾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신라는 訥祗王 34(450)년 고구려의 장수를 죽였지만 전면적인 전쟁에 부담을 느낀 고구려 측의 항의와 신라의 사과로 무마된다.¹⁷⁾ 이는 廣開土大王이 신라를 구원하여 왜와 가야 세력을 정벌한 이후 유지된 우호 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신라는 눌지왕 39(455)년 고구려가 백제를 침입하자 군사를 보내 구원하고 있다.¹⁸⁾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의 남하에 맞서 군사적 협력 관계를 시도하게 된다.

백제 蓋鹵王은 신라와의 협력 관계에 그치지 않고 461년 고구려의 남침

13) 朴京哲, 앞의 논문, 1989, 53~61쪽.

14) 『三國史記』 25 百濟本紀 3 毗有王 7年條.

15) 『三國史記』 25 百濟本紀 3 毗有王 8年條.

16) 이와 같은 양국 간의 협력 관계를 나제동맹의 성립으로 보고 있다. 그 기간에 대해서는 433에서 554년까지로 보는 설(金秉柱, 『羅濟同盟에 관한 研究』, 『韓國史研究』 46, 1984, 29~39쪽)과 455년에서 554년까지로 보는 설(鄭雲龍, 『5-6世紀 新羅 對外關係史 研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6, 91~105쪽)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필자는 백제와 신라의 협력 관계를 동맹으로 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오히려 신라는 6세기에 이르러 고구려와 백제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에서 한발 물러남으로써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拙稿, 『熊津時代 百濟와 新羅의 關係에 대한 考察-羅濟同盟에 대한 비판적 검토-』, 『湖西考古學』 4·5合輯, 2001, 67~86쪽).

17) 鄭載潤, 앞의 논문, 2001, 71쪽.

18) 『三國史記』 3 新羅本紀 3 訥祗麻立干 39年條.

에 대비하기 위하여 左賢王인 昆支를 왜에 파견하였다.¹⁹⁾ 이 때 昆支가 가족까지 대동한 것은 단순한 請兵使가 아닌 장기간 체류에 대비한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그리고 昆支는 河內 지역에 정착하여 상당한 세력을 유지하였음을 볼 때, 백제 계통의 이주민들을 조직화하여 왜 정권에 협력하고, 이들의 힘을 이용하여 유사시에 백제를 구원하려는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나 생각된다.²⁰⁾

백제의 다각적인 외교 노력이 더해갈 무렵 고구려 장수왕은 재위 50(462)년 이제까지 사신 왕래가 없던 북위에 사신을 파견하여 관계 개선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장수왕의 노력은 한반도에서 백제 중심의 反高句麗 세력의 결집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신라는 464년 경내에 주둔하던 고구려 정예병 100명을 죽이고 있다.²¹⁾ 신라가 군사 자문단의 성격을 띠고 있던 고구려군을 몰아낸 것²²⁾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남방 지역에서 신라와 백제의 협력으로 불안이 가중되자 고구려는 서방 지역에서 안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462년 북위와의 관계 개선 시도는 남방 지역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확인된다. 이에 고구려는 465년 이후 매년 북위에 사신을 파견하여 서방 지역의 안정을 추구하고면서 남방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개입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백제 중심의 반고구려 연합 전선은 이미 상당할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 단적인 예가 이제까지 적대적이었던 신라와 왜 사이에 별다른 충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465년 이후 신라에 대한 왜의 침입이 중단되고 있는 것은 바로 고구려의 남하에 위협을 느껴 두 나라가 공동으로 대처할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나타내준다. 백제는 이전부터 왜와 우호관계를 유지하였고 고구려의 남하에 맞서 신라와 우호관계를 새

19) 이에 대해서는 拙稿(『熊津時代 百濟 政治史의 展開와 그 特性』, 西江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9, 22~32쪽)를 참조하라.

20) 鄭載潤, 앞의 책, 1999, 64~71쪽.

21) 『日本書紀』 14 雄略天皇 8年條.

22) 鄭雲龍, 앞의 책, 1996, 24쪽.

로 수립하였던 사실을 상기하면, 이러한 반고구려 연합 전선에 백제가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확인된다 하겠다.

일본열도에 있던 왜가 백제 중심의 반고구려 연합에 합류한 점은 물론 왜가 고구려의 남하를 심각하게 인식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이는 478년 倭王 武가 宋 順帝에 보낸 表文²³⁾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이에 근거하여 당시 왜는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²⁴⁾ 그 실행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왜가 고구려의 南下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확인된다 하겠다. 고구려의 남하가 현실화되어 한반도를 지배하려 한다면 그 여파가 왜까지 미친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와 같이 한반도 지역에서는 강대국인 고구려의 남하에 대응하여 백제와 신라, 가야, 그리고 일본열도의 왜까지 가담하여 이를 저지하고자 하였다. 그 중심에서 이러한 정세를 각인시키고 주도한 것은 백제였다.

이와 같이 백제의 외교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자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다.²⁵⁾ 백제의 對高句麗 포위 전략이 오히려 고구려를 자극하여, 한성 공격을 초래하였다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²⁶⁾ 사실 장수왕의 왕권강화 정책은 귀족 세력의 저항이 뒤따라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개로왕이 북위에 보낸 表文에 따르면 장수왕은 大臣·豪族을 殺戮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²⁷⁾ 이와 같은 국내 상황의 악화로 장수왕은 국내의 관심을 외부

23) 고구려가 無道하게도(백제를: 필자 註) 병탄할 속셈으로 변경을 약탈하고, 살육을 일삼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略). 선친인 濟도 원수같은 무리들이 폐하게 귀의하는 天路를 막는 것에 분개해서 백만의 군사를 일으켜 정의의 함성이 들끓었으나, 바야흐로 大事를 일으키려던 차에 갑작스럽게 父兄의 喪을 당하여 거의 완성된 공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略). 지금에 이르러 갑옷을 손질하고 무기를 정비하여 父兄의 유지를 이루려고 하자 義士는 虎賁의 용기로 충만하고 문무의 관리들은 공을 세우기를 갈망하여, 번득이는 칼날이 맞부딪치는 상황도 돌아보지 않을 테세입니다. 만일 폐하께서 황제의 은덕을 두루 미치신다면, 이 장적을 꺾고 이 지방의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되어 과거의 공을 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宋書』 97 列傳 57 夷蠻 倭國條).

24) 井上光貞, 『日本の歴史』 3, 小學館, 1974, 48쪽.

25) 이하의 내용은 拙稿(앞의 책, 1999, 42~44쪽)를 참조하라.

26) 梁起錫, 『웅진전도와 중흥』, 『한국사』 6-백제, 국사편찬위원회, 1995, 54쪽.

로 돌리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장수왕은 한성을 공격함으로써 백제에 큰 타격을 입힌다는 목적 외에도 지배세력 간의 갈등을 외부로 돌리고자 하는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⁸⁾

또한 당시 중국의 정세는 南北朝 대치상황으로, 송의 북위에 대한 포위 외교가 극에 달하던 시기였다. 즉 470년 8월과 9월에는 북위와 유연의 전쟁이 있었고, 471년 10월에는 송의 북위에 대한 공격이 있었으며, 472년 2·6·10월에는 계속해서 유연이 북위를 공격하였다. 이와 같이 송은 유연과 함께 북위를 포위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은 북위의 배후에 있는 고구려가 북위 포위작전에 동참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는 이전과 달리 한반도에서 고구려 포위 정책이 가시화된 465년 이후에는 거의 매년 북위에 사신을 파견하여 적극적인 對北魏 외교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볼 때 고구려는 465년 이후 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북위와 우호관계를 맺어 서방 지역을 안정시키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북위 또한 송과 유연의 연합에 고구려까지 가세한다면 매우 부담스러웠을 듯하다. 따라서 북위의 입장에서 볼 때 고구려가 남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제가 472년 이제까지 외교 관계가 없었던 북위에 고구려 征伐을 요청한 것은 외교적인 실책이었다. 백제의 對北魏 외교가 이루어진 시기인 472년 이후 고구려 또한 1년에 두 차례나 사신을 파견하여, 두 나라가 치열하게 외교전을 전개하였다.²⁹⁾ 또한 475년 북위에 勿吉의 사신으로 왔던 乙力支는

“그 나라에서 먼저 고구려의 10부락을 함락하고, 은밀히 백제와 함께 물

27) 『魏書』 100 列傳 88 百濟國條.

28) 李道學, 「漢城末 熊津時代 百濟王位繼承과 王權의 性格」, 『韓國史研究』 50·51合, 1985, 9~11쪽.

29) 金壽泰, 「百濟 蓋鹵王代의 對高句麗戰」, 『百濟史上的 戰爭』, 忠南大 百濟研究所, 1998, 145쪽.

길을 따라 힘을 합쳐 고구려를 취할 것을 피하고, 을력지를 대국에 사신으로 파견하여 그 가부를 청한다.”³⁰⁾

라고 하여 물갈이 백제와 힘을 합쳐 고구려를 공격할 뜻을 북위에게 비추고 있다. 백제와 물갈이의 군사적 협력이 어느 단계에 까지 이르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백제가 다각도로 여러 나라와 연합하여 고구려에 대항하고자 하였음은 확인된다.³¹⁾

하지만 고구려 또한 474년 백제와 교류하던 송에 사신을 파견하여 백제의 對高句麗 포위 작전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외교전에서 백제는 고구려의 정벌 요청을 북위가 거절하자, 북위와 관계를 끊고 있다. 이는 바로 외교전에서 백제가 패배한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고구려는 한성 공격을 한달 앞둔 475년 8월 북위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 때의 사신 파견은 그 시기를 감안하여 보면 북위에 백제의 침공을 통보하였거나 적어도 북위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³²⁾ 따라서 장수왕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對中 교섭은 백제 정벌에 필요한 사전 정리적 성격이 짙어 고구려의 치밀한 정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³³⁾

백제의 송에 대한 외교도 官爵 제수 등 중국측의 권위를 빌린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을지 모르나, 고구려의 제어에는 거의 도움이 없었다고 보인다. 송은 고구려가 주로 對北魏 외교에 치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구려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송은 고구려와 동맹을 맺는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지만, 최소한의 관계라도 유지한다면 북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고구려와의 관계 유지가 필

30) 『魏書』 100 列傳 88 勿吉國條

31) 梁起錫, 「5-6世紀 前半 新羅와 百濟의 關係」, 『新羅의 對外關係史研究』, 1994, 78~79쪽.

32) 이에 대해서 김한규는 북위가 백제의 제안을 거절하고, 고구려의 백제 공격을 지지하였다고 파악하였다(『한중관계사』 I, 아르케, 1999, 177쪽).

33) 申澄植, 「三國의 對中關係」,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一潮閣, 1984, 310쪽.

요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고구려는 對北魏 외교에 치중하면서 송과도 간헐적으로 외교를 하는 이중 외교를 펼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백제는 이러한 고구려의 이중 외교를 비난하면서 고구려 정벌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제 관계의 역학 구조상 북위는 이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즉 당시의 국제 관계에서는 백제의 고구려 포위 전략보다는 송과 북위의 상대방 포위 전략이 보다 중요하였다. 북위로서는 宋·柔然과의 계속된 전쟁 외에 고구려와의 충돌까지 일어난다면 사방을 적에게 포위당하는 형국이라서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는 서방의 안정을 취하고 남방으로 진출하려는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북위에 부담을 덜어주었다. 따라서 북위는 이를 환영하거나 최소한 중립을 지켰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이러한 국제 관계를 인식하지 못한 백제가 북위에 고구려 정벌을 요청한 것은 정세를 잘못 판단한 외교전의 실책이라고 생각된다. 나아가 이는 고구려를 자극하여 백제 정벌의 필요성을 제공하였던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고구려의 한성 공격은 대내외적인 상황의 전개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물이었다. 한반도의 패자였던 고구려는 반고구려 연합을 주도한 백제를 응징할 필요가 있었다. 백제의 응징은 이에 가담한 국가들의 결속을 약화시켜 고구려의 관할권으로 들어오게 할 좋은 기회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고구려는 백제의 한성 공격을 추진하였으며, 백제와 치열한 외교전을 전개하였다. 외교전에서 결정적 승기를 잡은 고구려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군사적인 공격이었다.

3. 高句麗의 軍事戰略과 百濟의 對應

475년 고구려 장수왕이 親征한 한성 공격으로 백제는 커다란 타격을 입

게 되고, 고구려는 그 위용을 한반도 전역에 떨치게 된다. 이 장에서는 한성 공격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고구려가 어떠한 군사 전략을 취했으며, 백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A-1. 近蓋婁가 그것을 듣고 아들 文周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리석고 총명하지 못하여 간소한 사람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백성들이 쇠잔해지고 군사가 약하니 비록 위험한 일이 있더라도 누가 기꺼이 나를 위하여 힘써 싸우겠는가. 나는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너는 이곳에 있다가 함께 죽어도 유익함이 없으니 어찌 난을 피하여 나라의 계통을 잇지 않겠느냐”하니 文周가 이에 木荔滿致와 祖彌架取[목협, 조미는 모두 複姓인데 『隋書』에는 목협을 두 가지 성으로 하였으니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와 더불어 남쪽으로 갔다. 이에 이르러 고구려의 對路齊于, 再曾架婁, 古亦萬年[재증, 고이는 모두 복성이다]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북쪽 성을 공격하여 7일만에 함락시켰다. 군사를 옮겨 남쪽 성을 공격하자 성안이 위험에 빠지고 왕은 나와서 도망갔다. 고구려 장수 軻路 등이 왕이 말에서 내려 절하는 것을 보고 왕의 얼굴을 향하여 세 번 침을 뱉고 곧 죄목을 헤아린 다음 묶어서 阿且城 아래로 보내어 죽였다. 軻路和 만년은 본래 백제 사람으로서 죄를 짓고 고구려로 도망하였었다(『三國史記』 25 百濟本紀 3 蓋鹵王 21年 秋九月條).

-2. 고구려 왕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 백제를 쳐 없앴다. 이 때 조금 남은 무리들이 창고 아래에 모여 있었는데 군량이 다하자 근심하여 우는 것이 심하였다. 이에 고구려의 여러 장수가 왕에게 일러 “백제는 마음이 非常합니다. 신이 그것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스스로 그르치게 됩니다. 다시 덩굴처럼 살아날까 두려우니, 쫓아가 없애기를 청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불가하다. 과인이 듣기에 백제국은 일본국의 官家가 된지 오래되었다고 한다. 또 그 왕이 천황을 섬긴 것은 이웃 나라가 다 아는 바이다”라고 하여 드디어 그만두었다 [『百濟記』에 이르기를 “蓋鹵王 乙卯年 겨울 고구려의 대군이 와서 大

城을 7일 낮밤을 공격하자 왕성이 함락되어 드디어 尉禮를 잃었다. 국왕 및 태후, 왕자 등이 다 적의 손에 죽었다”라고 하였다(『日本書紀』 14 雄略天皇 20年 冬條).

위의 기사 A-1에 의하면 고구려는 망명한 백제 장수인 재증걸루와 고이 만년을 앞세우고 북성을 공격하여 7일만에 함락시키고, 남성을 공격하여 개로왕을 붙잡아 아차성 밑에서 처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A-2에서 인용된 『百濟記』에서도 7일 낮밤의 전투 끝에 왕성이 함락되었고 이 때 국왕 등이 죽었다는 기사가 보여 확인된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고구려와의 전면전 당시 백제왕이 남성에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백제 왕성의 위치는 백제 도성의 구조와 관련하여서도 흥미가 있으며, 더욱이 백제 도성의 방어체계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된다 할 수 있다. 먼저 이 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어 고구려의 군사 전략과 백제의 대응을 차례로 알아보기로 하자.

한성 함락 당시 백제의 도성은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일대에 위치한 것으로 거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그런데 위의 사료 A-1에서 도성에는 북성과 남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그 위치상 북성은 풍납토성, 남성은 몽촌토성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볼 때 언뜻 백제 왕성은 몽촌토성으로 보인다. 즉 앞의 사료 A-2가 A-1과 같은 순서로 서술을 하였다면 대성=북성, 왕성=몽촌토성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³⁴⁾

하지만 두 내용을 동일하게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三國史記』와 『日本書紀』에서 인용한 『百濟記』는 분명 다른 자료에 근거하여 서술하였을 것이다. 물론 한성이 7일만에 함락당하였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함락 당시의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에서는 두 史書가 차이가 난다. 『三國史記』는 고구려의 공격을 순차적으로 자세하게 적고 있으며, 『百濟記』는 7일만에 백제 왕성이 함락되었다는

34) 朴淳發, 『漢城百濟의 誕生』, 서경문화사, 2001, 174쪽.

사실은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이를 가지고 『百濟記』와 『三國史記』가 같은 순서로 성을 서술하였다고 보는 것에는 의문이 든다. 더욱이 위기 상황에서 왕이 남성에 있었던 사실만 가지고 왕성으로 단정하기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다.³⁵⁾ 즉 도성이 공격당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단지 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남성이 왕성임을 입증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대성은 커다란 성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왕성의 異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싶다.

이와 같이 몽촌토성을 왕성이라고 단정한 것은 각종 중국 도자기 및 와당 등의 유물이 이 곳에서 출토되어 주목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³⁶⁾ 하지만 최근 풍납토성의 발굴이 진행되면서 몽촌토성을 압도하는 백제 초기의 많은 유물이 출토되어 풍납토성이 왕성일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재고를 논하는 사안이다.³⁷⁾ 설혹 남성이 왕성이라면 고구려는 곧장 왕성을 공략하지 않고 북성의 공략에 주력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고구려군은 왕성인 풍납토성을 함락시키기 위하여 주력하였으며, 개로왕은 이 치열한 전투를 피하여 몽촌토성에 피신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5) 개로왕이 남성에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북성이 함락 위기에 처하자 남성으로 피신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등 이에 대한 좀더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36) 서울대박물관, 『몽촌토성-서남지구발굴조사보고』, 1989, 210쪽.

37)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이 참조된다.

이종욱, 「풍납토성과 『삼국사기』 초기기록」, 『風納土城[百濟王城]研究論文集』, 東洋考古學研究所, 2000.

김태식, 『풍납토성-500년 백제를 깨우다』, 김영사, 2001.

申熙權, 「1-3세기 한강유역 주거와 백제의 형성」, 『동아시아 1-3세기의 주거와 고분』, 國立文化財研究所, 2001.

권오영, 「풍납토성 경당지구 발굴조사 성과」, 『風納土城의 發掘과 그 成果』, 한밭대학교, 2001.

申熙權, 「風納土城의 築造技法과 性格에 대하여」, 위와 같음.

국립문화재연구소, 『風納土城』 I, 2001.

한신大學敎育博物館, 『風納土城』 III, 한신大學敎育博物館叢書 15, 2003.

다음으로 고구려의 한성 공격의 정황과 그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의 자료는 이를 엿볼 수 있는 사료이다.

B-1. 蓋鹵가 왕위에 있는지 21년에 고구려가 침략해 와서 한성을 포위하였다. 개로가 성을 굳게 지키면서 文周를 신라에 보내어 구원을 요청하여 병사 1만명을 얻어 돌아왔다. 고구려 병사는 비록 물러났으나 성이 파괴되고 왕이 죽어 드디어 왕위에 올랐다. (왕은) 성품이 부드럽고 결단력이 없었으나 또한 백성들을 사랑하였으므로 백성들도 그를 사랑하였다. 겨울 10월에 서울을 웅진으로 옮겼다(『三國史記』 26 百濟本紀 4 文周王 卽位條).

-2. 봄 2월에 사신을 위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가을 8월에 사신을 위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9월에 왕은 군사 3만명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략하여 왕이 도읍한 한성을 함락시키고, 그 왕 扶餘慶을 죽이고 남녀 8천 명을 사로잡아 돌아왔다(『三國史記』 18 高句麗本紀 6 長壽王 63 年條).

위의 사료 B-1에서 고구려군은 신라 구원병 1만 명이 도착하자 왕성에서 물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료 B-2에서 장수왕은 한성 공격을 끝내고 귀환할 때 백제 주민 팔천 명을 사로잡아 갔음도 확인된다. 그런데 고구려는 어렵게 획득한 백제의 왕성을 왜 쉽게 물러났을까. 물론 신라의 구원병이 다다랐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한성을 공격한 고구려군은 3만명에 달했고, 이미 도성을 함락시켜 방어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이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비록 고구려군이 퇴각하였지만 위의 사료 B-1에 보이는 것처럼 문주는 왕에 오른 직후인 10월에 웅진으로 천도를 단행하였다. 웅진 천도는 백제 내부의 사정도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앞의 사료 B-1에 보이는 것처럼 한성 전투로 인한 혼란과 파괴가 고려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구려

군과의 대치 상황도 천도의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즉 고구려군이 퇴각하여 주둔한 지점은 도성을 마주보고 있는 아차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제라도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위치이다. 문주왕은 이와 같은 부담 외에도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웅진으로 천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³⁸⁾

그렇다면 백제의 웅진 천도 이후 도성인 한성 지역을 어느 나라가 장악하였을까 궁금하다. 이에 대해서는 한성이 여전히 백제의 영역이었다는 견해가 있다.³⁹⁾ 하지만 몽촌토성에서는 백제 토기 이외에 약 12% 정도의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었다.⁴⁰⁾ 따라서 한성 함락 이후 일정 기간 고구려군이 몽촌토성에 주둔하였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백제의 舊都인 한성이 백제의 영역이었다는 견해는 이를 해결해야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다.⁴¹⁾

또한 몽촌토성에 고구려군이 주둔한 것은 한성 공격의 성격을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고구려군이 왕성인 풍납토성에 주둔하지 않고 구릉지를 끼고 있는 몽촌토성에 거주한 것은 바로 방어를 고려한 주둔이라고 생각된다.⁴²⁾ 그렇다면 개로왕이 남성인 몽촌토성에 피신한 것도 피난성으로서의 몽촌토성의 성격과 관련시킬 수 있다. 백제가 고구려의 남하로 위기 상황에 직면하자 다각적인 외교를 하여 신라, 왜, 가야 세력과 연합하였음을 상기하면, 백제는 자체적으로 고구려와의 전투에 대비하였을 것이다. 이 때 평지성인 풍납토성보다 몽촌토성이 방어에 유리하여 유사시에 이에 피난하여 방어를 계획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몽촌토성의 방어 거점성으로서의 성격은 고구려의 남하 전략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이제 이 점에 대하여 알아보자. 고구려의 남하 전략을 살펴보기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고구려가 어느 시기에 한강 유역에까지 이

38) 천도의 요인에 대해서는 拙稿(앞의 책, 1999, 32~52쪽)를 참조하라.

39) 朴賢淑, 앞의 논문, 2001, 120~121쪽.

40) 崔鍾澤, 「고고학상으로 본 고구려의 한강유역진출과 백제」, 『百濟研究』 28, 1998, 155쪽.

41) 鄭載潤, 앞의 책, 1999, 138~141쪽.

42) 崔鍾澤 또한 몽촌토성이 풍납토성에 비하여 군사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추정하고 있다(앞의 논문, 1998, 155쪽).

르렀을까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고구려가 일시에 한강 이남지역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임진강 이남지역을 확보하고 일정기간 한강 북안의 구 의동과 아차산 일원에 주둔하며 백제와 한강을 사이에 두고 상당한 기간 대치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⁴³⁾ 이의 타당성 여부는 임진강과 한강 북안에 설치된 군사 거점의 축조 시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고구려와 백제는 낙랑과 대방군이 한반도에서 축출된 이후 이 지역을 둘러싸고 치열한 다툼을 하였다. 백제의 近肖古王과 고구려 故國原王과의 평양성 전투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전투에서 고국원왕이 전사하여 백제는 승리를 하였다.⁴⁴⁾ 하지만 고구려는 곧바로 체제를 정비하여 廣開土大王代에 이르러 백제의 阿莘王을 굴복시키고 우위를 지킨다. 이 때 광개 토대왕은 백제를 정벌하였을 뿐 임진강 유역까지는 영역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유적에서도 확인된다. 임진강 유역의 주요한 고구려 거점은 대부분 강 북안 지역에 위치한다. 그러면 임진강에 설치된 주요 고구려 거점을 하류 지역에서부터 살펴보자.⁴⁵⁾

덕진산성은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하며, 주로 통일신라의 기와편이 채집된다. 하지만 일부 고구려 토기도 채집되어 이 성에 고구려 군사시설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특히 부근에 있는 초평도는 임진강을 건너는 주요 교통로로 이용되었음을 상기하면 덕진산성의 고구려 유적은 강의 渡河를 막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⁴⁶⁾ 파주시 진동면에 위치한 두루봉 보루는 호로그루성과 덕진산성 사이에 위치하였으며, 보루 내에서 고구려 기와편이 발견되었다.⁴⁷⁾ 기와가 있었다는 것은 이 지역에 건물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며, 따라서 고구려 측에서 거점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43) 崔鍾澤, 앞의 논문, 1998, 158쪽.

44) 『三國史記』 24 百濟本紀 2 近肖古王 26年條.

45) 이하의 서술은 주로 경기도박물관에서 간행한 『임진강』 2(2001)를 참조하였다.

46) 경기도박물관, 『임진강』 2, 2001, 397~402쪽.

47)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2001, 402~404쪽.

연천군 장남면에 위치한 瓠蘆古壘城은 매우 중요한 고구려 거점으로 파악된다. 고구려군이 남하할 때 개성-장단-고랑포 방면을 통하는 것이 임진강을 손쉽게 건널 수 있는 최단거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는 三國統一기에 김유신도 호로하를 건너왔다는 기사에서 확인된다.⁴⁸⁾ 이 성에 대해서는 백제가 초축한 다음 고구려가 개축하였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⁴⁹⁾ 강남안을 조망하기 좋은 위치이고 많은 양의 고구려 기와와 토기가 출토되었음을 고려하면 주로 고구려에 의해 사용되었던 성임은 분명하다. 특히 대규모의 瓦家가 건축되고 있는 점은 이 지역의 중요성을 더해 주고 있다.⁵⁰⁾

연천군 미산면에 위치한 당포성은 그 형태가 호로그루성과 흡사하며, 고구려 토기편이 발견되어 고구려와 관련이 있음이 확인된다. 이 성 역시 강을 건너는 당개나루를 제어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군사 거점으로서 적당하다.⁵¹⁾ 하지만 고구려가 백제 왕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회하는 교통로이기 때문에 호로그루성에 비해서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성 주변에 있는 무등리 1·2보루와 우정리 보루에서도 고구려 와편과 토기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보루가 당포성과 관련된 고구려 유적임이 확인된다.

은대리성은 연천군 전곡읍에 위치하며 고구려 토기편이 발견되었다. 이 성 또한 호로그루성과 흡사하여 고구려 유적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백제와의 관련에서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교통로이기 때문에 한성 공격을 위한 중요한 거점이었다고는 할 수 없겠다.⁵²⁾

이와 같이 고구려는 임진강 하류에서 상류인 한탄강에 이르기까지 강을

48) 『三國史記』 42 列傳 2 金庾信 中 (文武王 元年) 12月 10日條.

49) 김성범, 『軍事保護區域內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京畿道 漣川郡篇), 『文化財』 25, 1992, 234쪽. 나아가 호로그루성은 부여 나성 등과 구조가 흡사함을 들어 백제가 초축하였을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지도위원의 지적도 있었다(2001. 5. 25일 현장발굴설명회).

50) 심광주 외, 『漣川 瓠蘆古壘』 精密地表調査報告書, 토지박물관·연천군, 1999, 207~210쪽.

51)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2001, 413~416쪽.

52)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2001, 431~434쪽.

건너는 주요 지점에 군사 거점을 마련하였다. 특히 호로그루성은 백제의 도성으로 통하는 주요 교통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거점성을 중심으로 고구려의 남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호로그루성의 축조 시기는 고구려가 이 지역을 장악한 시점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호로그루성에서 채집된 목탄의 연대 측정 결과 문화재연구소에서는 AD 420~620년, BETA연구소에서는 AD 430~660년이라는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⁵³⁾ 이를 놓고 본다면 호로그루성의 중심 연대는 최소한 장수왕대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임진강의 거점 설치의 장수왕대에 이루어진 고구려의 남하와 관련이 있음이 확인된다.

이에 맞서 백제 또한 고구려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방어선을 구축하였을 것이다. 이 때 주목되는 거점으로서는 도하를 막는 임진강 남안의 군사 시설이다. 먼저 현재의 파주시 일대에서 백제의 방어 거점으로 거론되는 성으로는 烏頭山城·月籠山城·鳳棲山城 등이 있다. 월룡산성은 정상 부근에서 백제토기가 채집되었으며, 이 지점에서 오두산성⁵⁴⁾·봉서산성·고봉산성이 모두 조망된다. 봉서산성은 서쪽에 문산천이 북류하여 임진강 하류 쪽으로 흐르고 있으며, 문산천을 사이에 두고 월룡산성과 마주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성은 임진강 유역에서 한강유역으로 이어지는 문산천로를 통제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쪽 방향으로 1번 국도를 따라 10km 정도 내려가면 고봉산성과 명봉산성이 좌우에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백제는 이들 성을 중심으로 한강유역으로 진입하는 세력을 저지하기 위한 계획적인 방어체계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⁵⁵⁾

파주시 적성면 일대의 백제 방어 거점으로는 七重城이 주목된다. 고구려의 주요 거점인 호로그루성과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한 이찬미성도 위치상

53) 심광주 외, 앞의 책, 1999, 210쪽.

54) 백제의 관미성으로 보기도 하나 확실하지는 않다. 다만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을 통하여 백제의 도성으로 이르는 길목을 장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이라고 할 수 있다.

55)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2001, 336~340쪽.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백제 계통의 유물이 발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백제의 방어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에 비하여 칠중성은 신라에 의해 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백제 초기에 七重河에서 靺鞨의 추장을 사로잡아 마한에 보냈다는 기사⁵⁶⁾에서 백제의 성이었음이 확인되기 때문에 백제와 관련있는 성으로 보아도 무난할 듯하다.⁵⁷⁾ 이 때 칠중성은 고구려의 주요 거점인 호로고루 방면에서 남하한 세력을 저지하였을 것이다. 아울러 주변에 있는 아미성은 임진강 유역에서 한강유역으로 이어지는 주요로의 하나인 간파천로로 진입하는 적을 서쪽의 수철성과 함께 차단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⁵⁸⁾

이와 같이 임진강의 남안에서 백제는 고구려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하여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그런데 백제의 방어성은 강에서 다소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물론 이들 성에서 병력이 파견되어 고구려군이 渡江할 때 저지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고구려와 달리 순수한 거점성보다는 일정 지역을 관할하는 성격도 가졌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백제의 방어 전략은 강의 도하를 직접 막기보다는 간선로에서 적을 방어하는 전략을 취했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한강 유역의 고구려 유적에 대하여 살펴보자. 먼저 구의동 유적은 한강 북안의 전망이 좋은 높은 봉우리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이 유적은 군사 요새로 보이며, 무기류의 비중이 많은 것은 이를 확인해 준다.⁵⁹⁾ 주둔한 군사는 개인 화기인 鐵鎗이 9점, 鐵斧 4점이 출토되어 대략 10여 명이 주둔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⁶⁰⁾

56) 『三國史記』 23 百濟本紀 1 溫祚王 18年條.

57) 최근에는 城內에서 발견된 백제 토기편을 초축과 관련시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박경식 외, 『파주 칠중성 지표조사 보고서』, 단국대학교·파주시, 2001, 256~257쪽).

58)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2001, 248~252쪽.

59) 崔鍾澤, 앞의 논문, 1998, 141~143쪽.

60) 최종택, 「한강유역 고구려 보루의 구조와 성격」, 『특별전 고구려-한강유역의 고구려 요새』 발표 요지문, 서울대학교 박물관, 2000, 29쪽.

구의동 유적은 아차산·용마산 일대의 고구려 보루와 연결되어 있다. 이들 보루는 능선을 따라 작은 봉우리에 위치하며, 아차산에서 4개, 용마산에서 5개가 발견되고 있다. 이들 보루는 한강 남안의 백제 도성을 조망하기 위한 거점으로 보인다.⁶¹⁾ 이 중 아차산 정상에 위치한 4보루는 상당히 중요한 거점으로 추정된다. 이에는 12기의 온돌이 설치되어 군사가 상주하였음이 확인된다. 특히 대장간 시설이 발견되어 철제품, 아마 간단한 무기 등의 수리를 현장에서 하였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건물 또한 7기가 발견되고 있는데, 이를 보면 최소 10개의 부대, 대략 100여 명 정도의 군사가 주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⁶²⁾ 따라서 아차산 4보루는 구의동 보루보다도 그 규모나 중요성에서 상당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아차산 일대에 많은 군사 시설이 구축된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로왕을 사로잡아 죽인 장소가 아차산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곳이 한성 공격 당시 고구려군의 전초기지였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제 고구려군이 한강에 다다른 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지역의 유적을 발굴한 보고자는 토기류의 형태로 보아 5세기 중엽 경을 중심 연대로 추정하였다.⁶³⁾ 그러나 과연 고구려군이 도성의 눈앞에 이르러 백제와 수십년 간이나 대치 상태로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도성 앞까지 고구려군이 이르렀다면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되는데, 백제가 별다른 조치없이 수십년 간이나 이를 방치할 수 있던 말인가.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면 백제는 도성을 옮기는 문제 등 여러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백제 내부에서는 별다른 조짐도 보이지 않고 주로 고구려와의 외교전에 치중하였다. 즉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백제는 고구려의 평양 천도 이후 신라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461년에는 곧지를 왜에 파견하여 이에

61) 崔鍾澤, 앞의 논문, 1998, 146쪽.

62) 崔鍾澤, 앞의 논문, 2000, 27~30쪽.

63) 崔鍾澤, 앞의 논문, 1998, 141~151쪽.

대비하였다. 만약 이 시기에 고구려군이 도성 앞까지 이르렀다면 군권을 쥐고 있는 곤지가 장기간 왜 체류할 수 있었을까. 이와 같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면 곤지는 왜 가서 황급히 구원병 파견을 요청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有事時에 대비한다는 측면 외에 그렇게 급박한 파견이 아닌 것으로 보여, 곤지 파견이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서 비롯되지 않았음은 확인된다 하겠다.⁶⁴⁾

472년 백제 개로왕이 북위에 보낸 上表文에서도 위기 상황에 대한 절실함을 엿볼 수 없다. 오히려 북위의 고구려에 대한 정벌을 유도함으로써 백제의 공격적인 자세가 드러나 보인다. 이러한 백제의 對北魏 외교는 고구려를 크게 자극함으로써 472년 이후 적극적인 외교로 돌아서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는 서방 지역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본격적인 백제 공격을 시도하기 위한 사전 정리 작업으로 보인다. 이를 볼 때 고구려는 472년 이후에 백제의 한성 공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면 고구려가 남하하여 한강 유역에 이른 시기는 적어도 472년 이후일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싶다.

백제 또한 한강 유역의 방어를 위하여 삼성동 토성 등 한강 남안에 방어 체계를 구축한 것이 확인된다.⁶⁵⁾ 또한 유사시에 대비하여 몽촌토성을 피난 성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추측된다.⁶⁶⁾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변 국가와 다각적인 외교를 하여 고구려의 남하를 저지시키고자 하였다. 한성 공격이 발발하자 신라의 구원병 1만명이 이르고, 왜의 구원병 파견을 염려한⁶⁷⁾ 고구려군의 철수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64) 곤지를 왜에 파견한 이유를 그에 대한 견제로 보는 견해(연민수, 『5세기 후반 백제와 왜국』,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1998, 411~417쪽)도 이와 같이 상황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고구려군이 도성 앞까지 이르렀다면 주도권 싸움을 할 여유가 없는 것은 분명하며, 따라서 곤지가 파견될 당시 백제는 고구려의 남하에 위기 의식을 느낀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적인 위기 상황까지 이른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65) 李道學, 『百濟 漢城時期的 都城制에 관한 檢討』, 『韓國上古史學報』 9, 1992, 36~38쪽.

66) 공주의 公山城이나 부여의 扶蘇山城을 有事時에 대비한 피난 왕성으로 볼 수 있다면 몽촌토성이 이들 성의 모델로 되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이와 같이 고구려는 한성 공격을 장기전이 아닌 제한적인 速戰速決로 치르고자 하였다.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이 틈을 노린 서방 지역에서의 다른 국가와의 전쟁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고구려는 5세기 중엽 이후 먼저 임진강 북안의 고구려 방어선을 확보하고, 이어 한강 북안의 방어선을 확보한 다음 백제의 도성을 공격하는 단계적인 남하 전략을 세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공격에 치우치지 않고 유사시를 대비한 방어까지 고려한 전략인 것이다. 이 때 고구려군은 개성에서 장단을 거쳐 瓠蘆河나 七重河를 건너 칠중성과 양주를 지나 중랑천이나 왕숙천을 끼는 남하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⁶⁸⁾

따라서 고구려는 임진강·한탄강 유역의 하천을 중심으로 배후거점성을 만들고, 한강 중류에 이르러서는 도성을 관찰하기 쉬운 아차산 일대에 보루를 확보한 것으로 이해된다.⁶⁹⁾ 이와 같이 고구려는 방어선을 설정하면서 한성 공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배후에 있는 서방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서방정책과 남방정책의 連動性은 확인된다 하겠다.

4. 漢城戰鬥의 戰爭史的 意味

우리는 앞장에서 고구려의 한성 공격이 서방 지역에서의 안정을 바탕으로

67) 鄭載潤, 앞의 책, 1999, 39~40쪽.

68) 개성에서 임진강을 도하하여 파주를 지나 서울로 이르는 교통로나 칠원에서 포천을 지나 서울로 이르는 남하로도 상정할 수 있으나 적성 방향의 남하로에서 가장 많은 거점이 발견되고 있고, 가장 渡河가 쉬운 지름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성 방향 남하로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최종택, 앞의 논문, 2000, 28쪽).

69) 白種伍, 『京畿北部地域 城郭出土 高句麗 평기와 研究』, 檀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1, 4~23쪽.

로 한 제한적인 성격이 분명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앞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성 전투의 전쟁사적 의미를 정리하기로 하자.

먼저 고구려의 한성 공격은 평양천도에서 비롯된 남방정책의 추진에 반발하여 반고구려 연합전선을 주도한 백제를 응징하고자 한 것이 분명하다. 한편으로는 舊貴族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한 의도도 있었다. 수도가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겨진 이상 국내성에 기반을 둔 귀족들의 힘이 약화되고 대신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新進貴族들의 등장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다. 장수왕은 이들을 정치적 역학 관계에 적극 활용하여 왕권 중심의 관료체계를 지향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⁷⁰⁾

백제 또한 한성이 고구려에 함락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하였다. 고구려와 같이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배 세력의 재편이 불가피하였다. 한성 지역에 기반을 둔 舊貴族인 眞氏와 解氏 등의 쇠퇴와 昔氏, 沙氏 등의 新進勢力의 등장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⁷¹⁾ 이와 같이 한성 전투는 두 나라에서 지배 세력의 재편을 가져왔고, 이는 정치적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統治體制 전반에 걸친 개혁으로 이어져 삼국의 각축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다음으로 고구려의 군사 전략을 종합해 보면 영역화보다는 거점 확보에 우선권을 두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임진강과 한강 일대에 보이는 거점들이 대부분 둘레 400m를 넘지 않는 소규모 보루로 구축된 것은 이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이는 고구려 영역으로 편입되었던 평안도와 황해도 일대에 분포한 산성들이 대체로 수 km가 넘는 대규모인 것과 대비된다.⁷²⁾ 이들 성들이 이와 같이 대규모인 것은 군사적인 측면 외에도 주변을 관할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임진강과 한강 유역의 보루는 고구려가 영역화하기보다는 군사적인 거점을 마련하는데 우선권을 두었

70) 林起煥, 앞의 논문, 1996, 95~96쪽.

71) 鄭載潤, 앞의 책, 1999, 168~173쪽.

72) 심광주 외, 앞의 책, 1999, 213쪽.

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고구려의 군사 전략은 한성 공격 이후의 지배 방식에서도 보이고 있다. 백제의 웅진 천도 이후 영역 지배가 목적이었다면 고구려는 舊都城이었던 풍납토성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활용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풍납토성에서는 고구려 계통의 유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는 풍납토성보다 몽촌토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고구려군의 전략을 보여준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방어를 고려한 주둔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는 도성을 점령한 고구려가 백제의 웅진 천도 이후 몽촌토성을 활용하여 한강 유역의 지배와 방어를 총괄하고자 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고구려는 한성 지역이 위협에 빠진다면 일차적으로 한강 북안인 아차산 일대에서 북상하는 적을 방어하고, 최종적으로 임진강 북안에서 이를 막는 다중의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이는 바로 有事時에 남방에서의 거점을 확보하여 그 여파가 서방 지역까지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나타내준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의 군사전략은 장기간에 걸친 실질적인 지배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단기간이면서 효율적인 거점 위주의 진출을 함으로써 남방을 안정시키자는 데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백제와 신라 양국에게 고구려의 남하와 제한적이지만 한성 공격이라는 군사 행동은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 이는 두 나라 사이의 실질적인 군사 협력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 천도 이후 5세기 말까지 두 나라 사이에는 4차례의 군사 협력이 있었다. 이 때 백제가 3번, 신라가 1번 구원을 하였는데, 양국의 연합군은 모두 고구려군을 격퇴하였다. 이 시기에 신라가 단독으로 고구려와 벌인 3번의 전투에서 2번 패한 사실과 비교해 보면 분명하게 양국 연합군의 위력을 엿볼 수 있다.⁷³⁾ 이와 같은 두 나라 사이의 군사적 협력은 고구려가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는 데 커다란 제약은 가져왔다.

73) 鄭載潤, 앞의 논문, 2001, 74~76쪽.

다음으로 동아시아에서 송과 북위의 대립이 상대적인 우열을 보완할 수 있는 多者間 세력 균형으로 이어지자, 관련을 맺고 있던 주변 국가들의 관계도 남북조의 대립이라는 커다란 큰 틀 속에서 유지되었다. 고구려의 남하도 이러한 세력 균형의 결과 이루어진 정책 변화였다. 하지만 475년 단행된 고구려의 한성 공격은 한반도를 전장으로 몰아갔다. 본격적인 삼국의 항쟁기가 온 것이다. 이는 큰 테두리는 유지되면서 국지전의 양상으로 동아시아 정세가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에서는 단기적으로 고구려의 우위를 백제와 신라가 연합하여 대항하는 남북조 대립과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었다. 한반도 지역의 불안으로 고구려는 사실상 서방 지역에 대한 진출을 단념하게 된다. 2세기에 걸친 서방 지역에서의 평온은 역으로 고구려가 이 지역의 이해 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이는 나아가 요동과 한반도 지역에 걸친 覇者였던 고구려의 입지를 점차 약화시켰다. 남방에서 안정을 취하려던 의도와 달리 한반도에서 치열한 각축이 전개되자, 고구려는 동아시아 세력 균형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제 한반도 세력간의 우열이 동아시아 전체의 판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자간 세력 균형의 한 축이었던 고구려의 영향력 감소는 중국 대륙에서의 세력 균형이 파괴되어 통일 왕조가 출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589년 북조의 隋나라가 남조의 陳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한 것이다. 중국의 통일은 또한 한반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신라가 중국의 통일왕조인 당과 손을 잡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켜 삼국을 통일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고구려의 한성 공격은 세력 균형의 한 축이었던 고구려의 약화를 가져왔고, 그 것이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파괴함으로써 결국 중국과 한반도의 통일 왕조를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5. 맺 음 말

이제까지 필자는 475년 고구려에 의해 단행된 한성전투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성전투는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동아시아 정세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계기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문의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동아시아 정세에 대응한 고구려와 백제의 외교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동아시아 정국을 주도하던 송과 북위가 여러 세력을 끌어들이어 상대방 포위 전략을 구사함에 따라, 고구려는 이를 이용하여 세력 균형을 유지하였다. 그 결과 서방 지역이 안정되자 고구려 장수왕은 평양 천도를 단행하면서 남방정책을 추진한다. 하지만 고구려의 남방정책으로 백제와 신라뿐만 아니라 왜까지도 가담한 반고구려 연합 전선이 형성되게 된다. 이를 주도한 것은 백제였고, 따라서 고구려와 백제는 다각적인 외교전을 벌여 상대방 포위 전략을 구사하였다. 백제의 대고구려 포위전략은 한반도에서는 위력을 발휘하였으나 동아시아 정세를 주도하던 남북조 국가들에게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다. 모두 고구려의 현실적인 힘을 우선시하고, 고구려를 끌어들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백제의 적극적인 대중국 외교는 고구려를 자극하여 한반도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백제 중심의 반고구려 연합 전선을 약화시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고구려는 이제까지 외교사절이 중단된 북위에 적극적인 외교를 하여 서방을 안정시키고 한성 공격을 구체화시켜 나갔다. 북위 또한 고구려의 남방정책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고구려와 북위의 관계는 회복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고구려는 외교전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 군사적인 공격을 감행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고구려의 군사전략과 백제의 대응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한성 공략 당시 상황을 고찰하면서 백제 왕성은 풍납토성이며, 몽촌토성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피난성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구려는 단계적으로 남하를 추진하여 임진강에는 5세기 중엽 이후 거점을 확보하고, 한강 유역에는 한성 공격이 임박한 시점에 이른 것으로 보았다. 고구려의 한성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472년 이후 수립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구려는 임진강과 한강 북안에 주요한 거점을 확보하는데, 임진강 북안에서는 호로고루성, 한강 북안에서는 아차산성이 중요한 거점이었다. 백제 또한 이에 맞서 방어선을 구축하였고 임진강 유역에서는 칠중성을 중심으로, 한강 유역에서는 삼성동 보루와 몽촌토성 등이 방어 전략에 활용되었다.

고구려의 남하는 이와 같이 중요한 성이 위치한 호로나 칠중하를 건너 적성과 양주를 지나 중랑천이나 왕숙천을 끼고 아차산 일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고구려는 서방 지역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임진강과 한강의 북안에 방어선을 설정하면서 한성 공격에 나서고 있다. 이에서 우리는 고구려의 서방정책과 남방정책의 연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한성전투의 전쟁사적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에 따르면 고구려의 한성 공격은 반고구려 연합전선을 주도한 백제를 응징하고자 한 제한적인 전쟁이었다. 이는 서방 지역의 안정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이다. 한성 공격이 평양천도에서 비롯된 남방정책의 연장선이었고, 연쇄적으로 백제 또한 웅진천도를 단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수도의 천도로 두 나라는 지배세력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이는 통치체제 전반에 걸친 개혁으로 이어져 삼국의 각축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고구려의 군사전략은 영역화보다는 거점 확보에 우선권을 두었으며, 유사시를 대비하여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진출한 특징이 보인다. 이 또한 남방전선의 불안이 서방 지역에게까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생각된다. 하지만 상대적인 열세를 극복하고자 하는 백제와 신라는 실질적인 군사 협력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다. 동아시아의 다자간 세력 균형의 한 축이었던 고구려가 한반도에서 고전을 하여 서방 지역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자, 외면적으로 고구려는 이 지역에서 유례 없는 평화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다자간 세력 균형이 깨지면서 통일왕조가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중국에서의 통일 왕조의 출현도 이와 같이 고구려의 약화와 관련이 있다 할 수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역으로 중국의 통일 세력은 한반도에 관여하여 이와 연합한 신라의 삼국통일을 촉진시켰다. 결국 한성 공격은 중국과 신라의 통일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고, 이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원고투고일 : 2003. 10. 30, 심사완료일 : 2003. 11. 20)

주제어 : 한성전투(漢城戰鬪), 남방정책(南方政策), 서방정책(西方政策), 세력균형(勢力均衡), 반고구려 연합전선(反高句麗 聯合戰線)



<ABSTRACT>

The Military Strategy and Historical Meaning of the Hansung Engagement in 475

Chung, Jae-Yun

This study aim to research the strategy and historical meaning of the Hansung Engagement in 475 because this Engagement changed the domain of East Asia. Therefore,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Koguryō was the supreme power of the Far East in the 5th century. Koguryō had moved her capital to Pyongyang in 427 because of the success of the oriented to west policy in the northwest. So Paekche organized a anti-Koguryō Federation with Silla, Gaya and Wa(倭). Therefore, Paekche took the leadership of the anti-Koguryō Federation. Paekche had taken the diplomacy measure to China. However, Paekche could not obtain the practical effect. And Koguryō also took the diplomacy measure to China. Therefore, China did not want to make war with Koguryō. On the contrary, Koguryō wanted to assault the Hansung area to protect the attack of the anti-Koguryō Federation.

Second, Koguryō made the project to attack the Hansung area. And Koguryō made the strategy plan on attacking the Hansung area step by step. At first, Kogurea secured the strategic positions: Horokoru-castle walls(瓠蘆古壘城), Acha-castle walls(阿且山城), Chilchung-castle walls(七重城), and Monchon-castle walls(夢村土城).

Third, Koguryō used strategic positions rather than the road. Koguryō had an aim to use the strategic positions to secure the Han-river after the

Hansung Engagement. If Koguryō had lost these strategic positions, she would have lost the territory. And the oriented to south policy of Koguryō brought down the power of the Koguryō in East Asia. Therefore, Tang-dynasty was born in China. After that, Tang-china and Silla attacked Paekche and Koguryō.

The Hansung Engagement of Koguryō played a decisive role in changing the domain of East Asia.

Key Words : Hansung Engagement, Oriented to south policy, Oriented to west policy, Balance of power, Anti-Koguryō Federation

K C I